

한나의 기도

성경 사무엘상 1:9-18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좇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은혜의 찬양 266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2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찬송가 365장)

- 1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본문 배경

이스라엘 초창기에 중앙 성소 역할을 했던 실로를 매년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슬픈 마음을 안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던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18절을 보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처한 상황에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그녀의 마음에 슬픔이 걷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슬픔과 근심이 그 이후로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근심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관찰

1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11절)

답 서원하며 전심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해설 한나가 살았던 당시, 여인의 불임은 큰 수치였습니다. 불임은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조롱을 받기 쉬웠고, 한나 역시 브닌나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때 보통의 사람은 원망, 절망, 포기 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한나는 서원하며 작정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11절).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2 엘리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답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해설 한나는 제사장 엘리리가 볼 때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엘리는 그런 한나를 보고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17절). 이 말을 들은 한나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18b절).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은 이후부터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진정한 기도자의 모델입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무언가를 보답으로 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서원 기도를 해 본 적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3-1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146편 5절

♩ = 130

고보영

E B/D# C#m E/B A E/G# B7

야 곱 의 하 나 님 을 — 자 기 의 도 움 으 로 삼 으 며

5 E B/D# C#m E/B A E/G# F#m A/B B

여 호 와 자 — 기 하 나 님 에 게 — 소 망 을 두 는 자 는 —

9 E B/D# A/C# E/B A E/G#

복 이 있 — 도 다 — 시 — 편 —

12 F#m A/B B7 A/B B E

백 사 십 육 — 편 오 절 말 씀 아 —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나처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